

사상 최악 폭염... 2·3차 피해 우려

계속된 불볕더위가 전국을 관측 사상 가장 뜨겁게 달궜다.

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6분 현재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 대표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온이 39.6도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111년 만의 최고 기록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1994년 7월 24일에 관측된 38.4도였다. 이어 지난달 31일 38.3도, 1994년 7월 23일과 1943년 8월 24일 38.2도가 그 뒤를 잇는다.

이날 폭염은 한국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날 강원도 홍천의 기온은 오후 1시 59분쯤 40.1도를 기록한 뒤 오후 2시 1분쯤 40.3도에 이어 오후 4시 정각에는 41.0도까지 치솟았다. 한국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온이다.

부산·인천 1904년, 서울 1907년 등 현대적인 기상관측 장비가 도입된 20세기 초반 이래 전국에서 40도를 돌파한 적은 1942년 8월 1일 대구(40.0도)가 유일했다. 강원도 춘천(북춘천)은 40.6도(오후 4시 33분), 경북 의성은 40.4도(오후 3시 58분), 경기 양평 40.1도(오후 4시 17분), 충북 충주 40.0도(오후 4시 16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별 최고기온 기록이 새로 쓰였다. 100년이 넘는 한국의 기상 관측역사에서 '40도 이상'을 기



록한 곳이 불과 하루 사이 1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앞서 경북 의성은 올해 7월 27일 39.9도, 충북 추풍령은 1939년 7월 21일 39.8도를 기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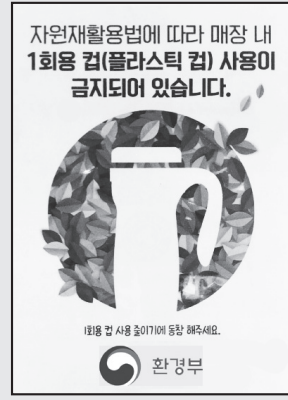
비공식 기록이지만 대표 관측소가 무인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측정한 낮 최고기온은 경기도 광주(지월)가 기록한 41.9도(오후 4시 17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 강북구가 기록한 41.8도(오후 3시 15분)가 뒤를 이었다.

한국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는 폭염대책본부를 8개 부처 2개 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장기화함에 따라 건설과 산업계, 농수산업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폭염으로 인한 복합적인 2·3차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커피점 등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

지난 2일부터 지자체들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용으로 커피를 주문한 뒤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업주는 단속 대상이 된다.



비자에게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지,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위반 사례만으로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5만~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의 직원은 주문을 받을 때 반드시 매장 내에선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과 테이크아웃 여부를 물어야 한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1회용품 사용 점검 회의의를 열고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점검 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 점검을 할 때 실적 위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컵 사용 단속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는 업주들을 감안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적발하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비치하고 있는지, 점원이 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크게 불편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다가 남은 커피나 음료수를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갈 때에는 다시 일회용컵에 담아 이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사용할 컵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할인해 주는 규정이 있는 업체에서는 할인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참하는 컵은 방문하는 매장 브랜드의 것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로고가 찍힌 것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태희 자원순환연대 사무국장은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회용컵, 개인 컵 사용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